

이창준의 단편소설 <별레이야기>를 이창동 감독이 각색 감독한 영화 '밀양'은 죄와 용서, 그리고 구원이라는 형이상학적 주제를 다루고 있다. "마음은 동요하고 혼란하고 지키기 힘들고 억제하기 힘들다. 지혜 있는 사람은 이를 바로잡는다. 마음은 잡기도 어려울뿐더러 가볍게 흔들리며 탐하는 대로 달아난다. 마음을 바로잡는 일이 행복의 근원이다"라는 <법구경>의 말씀처럼, 이창동 감독은 유괴된 아들의 죽음을 통해 변화하는 신애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불자 세상보기**

하재봉  
영화평론가 · 동서대 영상매스컴학부 교수

**영화 '밀양' 과 인간의 구원**

을 해칠 마음을 갖지 말고 원한을 품지 말고 성내는 마음을 두지 말라. 비록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더라도 그것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는 말라'고 하였다.

이창동 감독은 신애의 고통을 통해서 죄와 용서에 대해 묻는다. 그녀에게 죄가 있다면, 낯선 땅 밀양에서 기적지 않고 살기 위해서 돈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뿐이다. 아들이 다니는 웅변학원 학부모들 앞에서 땅 계약한다고 큰소리친 것밖에 없다. 그러나 결과는 아들의 죽음이다. 극단적 사건이 일어나고 신파로 흐를 수 있는 이야

기지만 리얼리스트인 이창동 감독은 냉정하게 인물을 응시한다.

신애는 자신의 어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기로 마음먹는다. '밀양'에서 가장 중요한 씬은 신애가 교도소로 법인을 면회 가는 장면이다. 아들을 죽인 죄인을 용서해 주겠다고 신애는 교도소를 찾는다. 하지만 법인은 주님을 영접하면서 이미 그 분이 자신을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말한다.

신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면회가 끝난 후 교도소 밖으로 나왔다가 힘없이 주저앉고 만

다. 왜, 어떻게, 자신이 범인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신애 먼저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인지 그녀는 이해할 수 없다. 이제 관객들은 신과 인간의 팽팽한 대결이 전개되고 있음을 깨달으며 깜짝 놀라게 된다. 어느새 죄와 용서라는 무거운 테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밀양'의 신애는 처음에는 무신론자였다가 아들의 죽음을 겪은 뒤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의 열성 신도로, 그리고 교도소에 수감된 범인을 면회한 뒤에는 오히려 신을 중요하는 입장으로 변모한다. 이창동 감독은 신애의 가슴 아픈 상처를 통해 죄와 용서의 본질에 대해 질문한다.

'밀양'의 마지막 씬은 제목을 그대로 형상화하고 있다. 신은 어디에 있는가? 마음에 상처를 받고 고통받는 영혼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일까? 이창동 감독은 아무 말 없이 카메라를 이동해서 은밀한 햇빛과 그 햇빛을 받아 모습을 드러내는 평범한 사람들을 보여준다.

마치 <중부경전>의 "지나간 것을 돌아가지 말라. 오지 않은 것을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고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잘 관찰해 보면 순간순간 변해가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를 살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씀처럼.

**불자의 눈**

**매체 감시 대응 기구 활성화**

'인터넷 유머'란 말 속에는 열거적이고 아한 이미지가 스며 있다. 인터넷이라는 수식이 네티즌적 이미지를 형성시킨다. 인터넷의 익명성 때문이다. 실제로 인터넷에 떠도는 유머들이나 유머 전용 사이트에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아한 유머와 비인격적인 소재의 이야기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옛날 선비들의 한문서적들도 은근히 아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음성적으로 회자되는 유머들이 양지로 나올 때는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 시킨다. 청소년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각종 범죄의 등기가 되기도 하고 저급한 언어문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문화일보가 지면에 실은 '절에서 생긴 일'은 더 큰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종교의 신성성을 '인터넷 유머'라는 코드로 무살한 실례이기 때문이다. 그 짧은 이야기에서 느끼는 전통종교에 대한 불이해와 폄하성은 차라리 얼굴을 들 수 없게 했다. 수행자들의 생활상이 세간에서 회문 거리로 전락한데 대해서는 세간이나 출세간이나 적지 않은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문화일보가 교계의 항의를 빨리 접수하고 즉각적인 사과 조치를 취한 것은 매우 잘 한 일이다. 신문의 즉각적인 조치처럼 불교계도 각종 매체에서 떠도는 왜블성 유머와 왜곡 보도들을 감시하고 대응하는 활동력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미디어를 감시하는 단체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기구들이 보다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서 불교계 권의 지키기가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다.

**동국학원, '발전' 먼저 생각할 때**

동국학원 이사회가 또 다시 갈등의 회오리 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6월 29일 아침 공중파 방송의 뉴스가 '신호환'이 됐다. 지난 해 하반기 신도 교수의 채용 과정에서 논문 표절 등을 문제 삼았던 이사장 윤승익이 '문제 제기'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지난 달 해임된 이후 이날 뉴스는 해당 교수가 최근 논문 표절과 관련된 사죄했다고 보도한 것이다.

보도가 나가자 장운 스님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신도 교수의 논문 표절과 관련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일부 자료까지 제시하며 "이사장과 전 현직 총장 등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사회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29일 현재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신도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국한 것은 이 문제의 중요한 분수령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거기에 장운 스님이 자신의 해임과 관련 거처분 소송을 내 놓은 상황이므로 이 문제는 본격적인 법적 공방으로 옮겨 갈 가능성이 높다.

동국대는 지금, 설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개혁불사를 추진 중이다. 일부 단과 대학의 학제 개편 작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직원들이 친절교육을 받았고, 차세대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가동 '108리더스'를 선발하는 등 활기찬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 불거져 나온 이사회의 갈등 양상에 대해 불교계는 적지 않은 우려를 하고 있다. 이사회는 새로운 100년을 위한 창조적 개혁을 이끌어 가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야 한다는 근본 기능을 잊지 말길 당부한다.

**'종교자유' 칼럼**

**18. 종교권력을 경계한다**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종교계 '힘의 논리' 위험...더 큰 포용력 가져야**

우리나라에서 사립학교는 고등학교의 절반, 대학교의 90%를 차지한다. 세계적으로 사립학교 비중이 높다는 미국이나 영국도 10%가 되지 않으며, 우리나라 다음으로 높은 일본도 20%가 안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가히 기형적이라 할 만하다.

우리나라 사학은 1948년 경 '농지개혁' 때, 그리고 1990년 전후 사학 설립이 정부의 '허가'에서 일정 조건만 갖추면 관청의 허가 없이 설립할 수 있게 하는 소위 '준칙주의'로 사학법이 개악된 때 그 숫자가 급격히 증가했음에 주목해야 한다. 농지개혁을 피하기 위한 편법과 학교 운영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사학 난립을 부추긴 셈이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데 왜 사학들이 맹렬히 반대하는지 이해할 것 같다. 간판은 '공익(公益)'을 내걸었지만, 속으로는 '사익(私益)'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이다.

지난 해 말 25명의 목사와 5명의 여신도, 그리고 3명의 한나라당 국회의원까지 사학법 재개정을 주장하며 집단 삭발했을 때 국민의 마음은 무거웠다. 의정사상 조우의 국회의원 삭발은 공감각처럼 반향을 샀지만, '돈과 신도'를 배경으로 이해관계 때마다 물리적 힘을 동원하는 종교계의 관행이 더욱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교인과 국회의원의 과격한 몸짓은

오히려 그 불량한 힘의 배후가 자극히 세속적인 '이권과 영향력'이라는 것을 확인해 줄 뿐이었다. 그동안 종교계와의 마찰을 금기시해 왔던 일반국민들이 이번만큼은 정면 돌파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배경이다.

불편 종교와 종교계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국민은 종교의 본질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소화하고 펼쳐나가는 사람들, 즉 일부 종교계의 물상식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사회의 더 큰 과제들, 예컨대 경제성장·민주화·투명성·평등의 문제들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종교사학들이 국민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강제 종교교육 등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 일들을 해오다, 교육자도 종교인으로 부끄러워하지 않은가.

그들은 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운영을 위해 사학법 개정운동을 벌였던 시민단체들을 '어둠의 세력'이라고 몰아붙였다. 폐쇄적인 그들이 오히려 '어둠'이고 그곳에 조그만 창 하나만이라도 내야겠다는 시민사회야말로 '햇빛'이 아닌가. 적반하장(賊反荷杖)은 이런 때 어울리는 말이다.

지난 4월 급기야 전국의 학부모 2백여 명이 사학법 재개정 세력의 배후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항의방문하고 시위까지 했다. 국민이 직접 나서서 종교계와 맞서는 전례 없던 사태까지



종교자유정책연구회 대표단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있다.

벌어진 것이다. 그만큼 문제의 핵심이 단순명료해졌다는 얘기다.

최근 대흥교회 중심의 보수 기독교계는 필요 이상 불만해고와 공세적이지까지 하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긴장시키고 있을까. 한마디로 권력의 맛을 버리지 못해서이다. 영락교회를 세우고 대광학교를 설립한 보수개신교의 원로 한경직 목사의 권력지향성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그는 1938년 신사참배 결의 시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심판을 받자'라던 '3장'을 인용하면서 권력에의 굴종을 호소하였다지 않

**사찰 법당 음향설비**

**DX-707 스텐드 마이크**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

- 어떠한 앰프로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 차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의용

**주문제작 (한정수량 60개)**  
▷가격 : 120,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高音質 무선마이크**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소리공명 종목**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체
-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민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8월 안으로 법당 앰프시설을 의뢰하시는 스님께서는 **'고성능 무선마이크1세트'**를 무료 보시 합니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봐서 읽을 수 있는 비법(秘法)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 천축, 연속 인제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풀이된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산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안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계의 상경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계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가 왜 명망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화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강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대론의 빛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운흥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1768-8414~6, Fax 0311761-8413